

연변지역 농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청조 말부터 현재까지를 중심으로 —

김석주** · 남설봉***

Research About Agricultural Change in Yanbian Area : from the Later of Qing Dynasty to the Current*

Jin Shizhu** · Nan Xuefeng***

요약 : 이 논문은 연변지역의 농업 변화과정을 일제시기, 사회주의시기, 개혁개방시기 등 3개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 연변지역의 농업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시계열적으로 변화·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시기 연변의 농경지는 이민정책, 자작농장정, 집단부락건설 등의 형식으로 일제의 수중에 집중되면서 자신들의 전쟁 수요와 국내 수요에 따라 농작물 재배를 통제할 수 있고 또한 농작물을 마음대로 약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전형적인 주변부 특징을 띠고 있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기 연변지역은 농촌의 인민공사회를 실현함에 따라 토지는 전부 국가소유로 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의 국가 소유는 농업생산에 있어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농업생산은 시장 논리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니라 식량생산만을 중요시하는 ‘이양위강(以糧爲綱)’정책의 영향으로 농업 내부에 있어 경작업만 중요시하고 경작업 내부에서도 식량생산만을 중요시 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서 호도거리책임제를 실시함에 따라 농민들이 토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의 생산의지가 크게 고양되었다. 게다가 사회주의 상품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이함에 따라 시장의 수요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변지역의 농업은 전통적인 식량작물 생산 위주에서 점차 다각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주요어 : 연변, 농업, 세계경제, 변화, 발전

Abstract : This article will divide agricultural change process in Yanbian area into the period of Japan rule, socialism and later time of the reform and open policy and so on. It will analyze the changes of Yanbian agriculture in every period influenced by external environment influence.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 first, under the influence of the Japan rule, the policy about Korean Minority immigrants in Japan and the original work agriculture and the group tribe construction, Yanbian farming was controlled by the Japanese. Therefore, Yanbian's agriculture became the tool to satisfy the war and plunder the resource for Japanese. It shows the obviously peripheral characteristics. Second, in socialism time, Yanbian's agriculture was influenced by the rural communalization. The farming completely belongs to the country, the agricultural production is influenced by the idea of "grain as the key link" which it only pays attention to take the cultivation industry and the production of grain in the interior of cultivation industry. Therefore, it has not been able fully to use the rich natural resource. Third, after reform and open policy, the countrysides were implemented family contract responsibility system, the farmer can rent the land for a long time, and the enthusiasm of agricultural production was improved. Moreover, due to the social market economy-system, the farmer carried on the agricultural production activities according to the market's demands and various departments of the agriculture obtained the coordinate development.

Key Words : Yanbian, the agriculture, the World system, the changes, development

1. 서론

1) 연구목적

16세기 유럽에서 형성된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

가 1840년대에 중국을 포섭함에 따라 중국은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바탕으로 반식민지·반봉건사회시기, 사회주의시기, 개혁개방시기를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변화를 겪어왔다. 같은 맥락으로 중국 내의 부분지역들도 이와 비슷

* The Project Sponsored by the Scientific Research Foundation for the Returned Overseas Chinese Scholars, State Education Ministry(教外司留[2005]383號).

**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Yanbian University)(jinsz@hanmail.net)

*** 연변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전임강사(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Yanbian University)(nanxf@hanmail.net)

한 과정 속에서 각자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면서 변화하고 있다.

연변지역은 중국 내에서 조선족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타 지역과 뚜렷이 구분되는 자치지역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지역에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삶이 영위되어 왔다. 그러나 청나라 주 세력이 산해관(山海關) 이남으로 진출한 후, 청나라는 연변지역을 비롯한 백두산 주변 지역을 만주족의 발상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역을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는 “봉금구(封禁區)”로 정함에 따라 약 200년 동안 인적이 드문 황지로 방치되었다. 19세기 중엽부터 중국이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하면서 이 지역도 예외 없이 유린을 당하게 되었다. 특히 연변지역은 중국, 러시아, 한반도와 인접해 있고 일본과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주변 지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김석주, 2006).

연변지역의 형성은 세계체제의 재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일찍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한 일본은 영토 확장의 일환으로 당시의 조선을 침략하고 그 마수를 점차 중국으로까지 뻗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변지역은 일본이 중국의 동북지역을 침략하는 ‘뒷문’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1907년에 용정에 ‘통감부간도파출소(統監府間島派出所)’가 설립되었으며, 1909년에 청조와 일본간의 ‘간도협약(間島協約)¹⁾이 체결되면서 연변지역에서의 일본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인의 연변지역으로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김석주, 2006).

이는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당시 만주변부적 위치에 처해 있던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지역을 자신들의 주변부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조선인을 이용하여 연변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연변지역이 본격적으로 개척되었고 이에 따라 과경민족²⁾이 집중된 연변지역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변부적 특징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김석주, 2006).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세계는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

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냉전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변지역도 자연스럽게 세계체제로부터 철회하게 되었다.

그 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구도가 와해되고 동북아 주변국 사이의 긴장관계가 완화됨에 따라 연변지역도 다시 중국의 세계체제로의 재편입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변지역의 형성과 발전은 세계체제의 변화와 갈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처해 있다. 따라서 연변지역의 농업의 변화·발전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 농업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변지역의 농업발전역사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룬 “연변 농업경제사”(박경수, 1987), 연변지역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농업을 언급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개론”(추영춘, 1982)과 “연변 경제사”(김규방 등, 1990)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역사적 시각에서 농업발전에 관한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다. 상기의 연구 외에 농작물 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지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연변지역의 농업의 변화·발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변지역이 세계체제로 편입·이탈·재편입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세계체제 특히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연변지역의 농업이 어떻게 변화·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자료

본 연구에서의 각 시기는 연변지역이 세계체제와 맺고 있는 관계의 변화에 따라 구분하였다. 연변지역은 청조와 일본간의 ‘간도협약’이 체결된 이후 당시 세계체제에서 만주변부로 급부상한 일본의 세력권에 편입됨으로써 세계체제의 주변부로 전락하였다. 물론 ‘간도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도 연변지역과 청국의 여타지역 및 조선 및 러시아 사이에는 일정한 경제적 내왕이 있었지만 연변지역은 아직 원료와 농산물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하

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도협약’ 체결 이후, 일제는 연변지역의 광물과 삼림자원을 약탈하기 위하여 자금과 인원 침투가 이루어 졌으며, 그 후에는 본격적인 농산물 약탈도 시행하였다. 때문에 연변지역이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된 시기는 ‘간도협약’이 체결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함에 따라 중국 내의 소지역인 연변지역도 자연스럽게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하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다시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로 재편입하였다. 그러나 연변지역은 중국의 연해지역에 비해 편입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다. 이는 연변지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당시의 국제정세와 관계된다. 연변지역은 구소련과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서 중국의 대외방위전략의 최전방에 위치한 제1선 지역이다. 남북의 분단 상황은 중국으로 하여금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하였고, 중소관계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까지만 하여도 1950년에 제정한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⁵³⁾의 종결을 선언할 정도로 긴장상태에 있었다(林軍, 1989). 따라서 연변지역은 당시 여전히 ‘전쟁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리하여 연변지역은 중국의 연해 개방지역과는 달리 1980년대 초까지 아직 자본주의세계체제에 편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연변지역에서도 경제체제개혁을 실시하였다. 1984년 9월 27일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제8기 인민대표대회 제11차 회의에서는 ‘도시 경제체제개혁을 진행할 것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서는 도시의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여 소유제 다양화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외자를 적극 유치하여 기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도록 고무하였다. 이에 따라 연변지역에서 외자에 의한 합작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는데, 1984년에 처음으로 홍콩과 공동 투자하여 길흥종이제품공장(吉興紙製品廠)을 설립하였다. 이후부터 연변지역은 본격적으로 대외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연변지역의 세계체제로의 재편입시기는 1984년을 기점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연변지역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세계체제의 주변부로 편입한 일제시기(1909~1949), 세계체제로

부터 이탈한 사회주의시기(1949~1984), 세계체제의 반주변부로 재편입한 개혁개방 이후시기(1984~현재)로 구분하였다(김석주, 2006).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연변지역의 농업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작물의 구조, 토지관계, 생산량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각 시기 연변지역 농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일제시기 연변지역의 농업특성

‘간도협약’ 체결 이후 연변지역은 일제의 농산물 수탈기지로 전락하여 세계경제의 주변부지역에 속하였다. 청나라의 ‘봉금령’으로 인해 거의 치너지와 다름없었던 연변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수자원이 풍부하여 농업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연변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기에 당시 연변지역의 주요한 산업은 농업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의 통치 말기인 1944년까지 지속되었다⁴⁾.

이시기 일제의 연변지역에 대한 농업통제는 주로 토지와 농산물 수탈에서 비롯된다.

1) 토지소유관계

일제는 연변지역의 농산물을 탈취하기 위하여 우선 농경지 약탈에 주력하였다. 일제는 일찍 소위 ‘만주국’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연변지역의 토지를 약탈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제가 연변지역에서 상조(商租)⁵⁾의 명의로 약탈한 토지는 약 3만 6천여 ha에 달하였다. 1911년에 용정촌의 화재발생을 계기로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명의로 2만 5천 엔을 투자하여 용정 일본총영사관에 용정 ‘구제회’를 설립하고 상부지내의 조선인과 중국인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금을 주고 토지 소유증을 저당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토지를 약탈하였는데, 1918년의 통계에 의하면 약탈한 토지가 3,867ha에 달하였다. 1926년부터 1931년 사이에 연변에 투자한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이하 ‘동척(東拓)’의 자금은 826만 엔에 달하였고 약탈한 토지는 8,000여 ha에 달하였다. 이는 1931년⁶⁾ 총경작지 면적의 5%에 달하며 ‘동척’은 연변에서 가장 큰 지주인 동시에

가장 큰 고리대금업자로 되었다.

1932년 만주국이 설립된 이후, 일제는 연변으로의 일본인 이민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36년부터 1943년 사이에 연변으로 이주한 일본인은 3,706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이 점한 토지는 2,135ha에 달하였다. 일제는 일본인을 이주시킴과 동시에 한반도로부터 대량의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이주시키기 시작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40년대 말에 5,114호의 조선개척이민이 점한 토지는 16,671ha에 달하였다.

그리고 ‘동척’은 더 많은 토지를 지배하기 위하여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전이하는 ‘자작농장정사업⁷⁾’을 벌렸다. 당시 ‘자작농장정요강’에 따르면 조선총독부에서 1934년부터 매 5년마다 10만 헥타 ‘동척’에 자작농장정보조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동척’에서는 매년 30만 헥타 투자하여 자작농으로 되려는 조선인에게 토지구매, 주택건축, 역축구매 및 기타 영농에 수요되는 자금을 대출 하도록 하였다. 1939년에 이르러 자작농으로 된 조선인은 2,915호로 증가되었으며 토지면적은 13,315ha에 달하였다.

이외에 일제는 연변지역에서 집단부락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제가 만주에서 항일세력을 견제하고 ‘사회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한 조치이다. 이들은 광범위한 서민들과 항일세력과의 연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무장자위단을 조직하여

분산된 농민들을 강제적으로 집결시켜 집단부락을 건설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34년부터 1936년 사이 연변지역에 설립된 집단부락은 도합 97개에 달하며, 총 호수는 9,411호에 달하였고 인구는 29,624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집단부락에서 점한 농경지는 호당 평균 5ha 이상에 달하였다(박경수, 1987, 84-103).

결론적으로 일제시기 연변의 농경지는 상조, 이민정책, 자작농창정, 집단부락건설 등의 형식으로 한족지주의 수중으로부터 일제의 수중에 집중되었다. 상기의 수단을 통하여 일제는 연변지역의 50% 이상의 토지를 점유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되어 자신들의 전쟁 수요와 국내 수요에 따라 농작물 재배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작물을 마음대로 약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농업구조

연변지역이 일본의 주변부로 편입됨에 따라 식민지 색채가 농후한 농업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는 농작물의 종류와 생산량 등에 있어서 모두 일제의 농산물 약탈과 전쟁 수요에 부응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표 1>에서와 같이 1917년 당시 연변지역의 농작물은 주로 밭작물이었다. 논이 있었지만 2.8%에 불과하여 매우 적은 비중을 점하였다. 이는 당시

표 1. 연변지역 주요 농작물의 파종면적 변화표

단위: 町步, ()안은 %

연도	파종면적	콩	조	옥수수	감자	벼	보리	수수	아마	담배	기타
1917	60,898	6,606	24,466	4,193	3,338	1,676	6,068	2603	-	-	11,948
	(100.0)	(10.8)	(40.2)	(6.9)	(5.5)	(2.8)	(12.4)	(4.3)	-	-	(19.6)
1925	190,029	44,098	59,288	18,407	-	7,601	12,191	13,302	-	-	35,142
	(100.0)	(23.2)	(31.2)	(9.7)	-	(4.0)	(6.5)	(7.0)	-	-	(18.4)
1931	242,210	77,575	65,084	16,736	10,872	14,284	10,730	7,332	-	-	39,597
	(100.0)	(32.0)	(26.9)	(6.9)	(4.5)	(5.9)	(4.4)	(3.0)	-	-	(16.3)
1939	297,042	88,477	57,919	29,894	13,614	24,951	17,633	6,544	761	1,136	56,113
	(100.0)	(29.7)	(19.5)	(10.1)	(4.6)	(8.4)	(5.9)	(2.2)	(0.3)	(0.4)	(18.9)
1943	245,209	65,949	47,980	29,419	17,666	20,084	18,093	6,734	3,563	2,727	32,994
	(100.0)	(26.9)	(19.6)	(12.0)	(7.2)	(8.2)	(7.4)	(2.7)	(1.5)	(1.1)	(13.5)

자료 : 1917년의 수치는 현규환, 1967, 한국유이민사, 어문각, p.251에서 인용한 것임. 1925~1931년의 수치는 박경수, 전개서, p.56에서 인용한 것임. 1939~1943년의 수치는 吉林省延邊行政督察專員公署建設科, 1943, 延邊地區農業關係統計表에서 인용한 것임.

연변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대부분 원적이 산지인 함경도로서 논농사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유럽의 농업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양국의 국제 시장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변지역의 관리와 지주들이 혈값으로 조선인들을 모집하여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1915년 일제가 동북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북양정부⁹⁾를 압박하여 ‘21개 조항’을 체결한 후, 지주, 관료, ‘동척’, 동아권업주식회사(東亞勸業株式會社)와 독점 자본가들이 동북지역의 땅을 약탈하고 조선인들을 고용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게 함으로써 연변지역의 경작지 면적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논 면적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당시 연변지역에서 논을 1정보 개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0~30원에 불과하여 일본(600여원)과 조선(150여원)에 비해 훨씬 적었다(박경수, 1987, 9). 일제는 연변지역에 전문금융기관을 설치하여 농민들에게 대부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논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만주사변 이후에는 침략전쟁의 수요에 의해 농업을 통제하기 위하여 1933년에 만주국의 ‘경제건설요강’, 1937년에 ‘산업개발 제1차5개년 계획’, 1942년에 ‘산업개발 제2차5개년 계획’등을 각각 제정하여 농작물을 배치하도록 강요되었다. 만주국의 ‘경제건설요강’에 의하여 연변지역의 농작물을 배치하는데 의하면 식량작물에서 벼, 조, 콩, 옥수수, 수수, 보리, 감자가 주되는 것이고 특용작물에서는 아마와 담배가 주되는 것이었다. 콩은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외에 일본의 사료와 공업원료로 공급되었고, 조, 수수, 옥수수는 서민들의 식량으로 출하되었고, 벼는 일본인의 식량으로, 감자와 보리는 연변지역 농민들의 주식으로 충당되었다. 그리고 아마와 담배는 공업원료로 국내외에 공급되었다(박경수, 1987, 105-107).

표 1에서와 같이 상품률과 출하율¹⁰⁾이 가장 높은 벼, 콩, 옥수수의 재배면적이 전체 경작지 면적 중에서 점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1917년과 1943년 이들 농작물의 재배면적이 전체 경작지 면적에서 점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각각 2.9, 2.5, 1.7배씩 증가되었다. 출하

율이 비교적 높은 조는 전체 재배 면적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을 점하였다. 그러나 주로 연변지역에서 소비되는 보리, 감자, 수수 등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거나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일제가 저들이 수요 하는 농작물의 재배를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아마와 담배는 워낙 연변지역의 경제작물이 아니었지만 일제가 국내의 공업원료로 수요함에 따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연변지역의 농산물은 상품률이 비교적 높아, 1920년대에는 평균 64.8%에 달했다. 그 중 쌀의 상품률은 75% 이상에 달했고, 콩의 상품률은 85% 이상에 달했는데, 주로 조선과 일본으로 수출되었다(延邊歷史研究所 編, 1986, 207). 당시 연변지역의 주요 농작물인 콩과 조의 수출에 대해 “한국이민사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28년에 경성상공회의소가 간도에 파견한 특별조사반의 보고에 의하면 간도 총농경지면적 20만 정보 중 12만 정보의 농토가 조와 대두 재배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간도 농업은 조 및 대두의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대두는 삼정물산(三井物産)이라는 일본의 독점제별 무역상사의 손을 거쳐 일본으로 수출되어 일본 농업을 위하여 비료로 사용되었으며, 일본 공업을 위하여 원료로 소비되었다. 다음에 조는 일본상인들의 손을 거쳐서 한국본토에 수출되어 한국농업의 기본 식량으로 소비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자국 내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생산된 미곡을 반출하여 갖고 간도에서 한국이민들이 생산한 조를 수입하였다가 한국본토내의 농민들에게 기본식량으로 다시 판매하였던 것이다. 참으로 한국미의 대일 수출과 간도 조의 대한국 수출은 일본의 상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유리한 이윤의 원천을 제공하였다. 일찍이 1917년에 간도의 용정에 조선은행지점이 설치된 것도 간도 조의 대한국 수출을 담당하였던 상인들에게 충족한 상업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간도 조의 대한국 수출과 한국미의 대일본 수출은 끊을 수 없는 상호관계 밑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간도조의 수입과 한국미의 수출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수치로 명확히 간파할 수 있다. 1912년 한국미의 대일본 수출량은 543,397석이었

으나 1919년 2,882,585석, 1926년 5,784,883석으로 증가되었다. 한편 간도 조의 수입량은 1912년 27,966석, 1919년 944,182석, 1926년 2,184,773석으로 각각 증가되었다(고승제, 1973, 40-41).

이를 통하여 당시 연변지역의 콩과 조와 같은 농작물 생산이 일제의 농작물 수요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점했는지를 알 수 있다.

1941년 8월 일제는 중국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강제적인 양곡 ‘공출제’를 실시하여 양곡을 마구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벼농사를 짓는 조선인들은 거의 전부의 벼를 공출하게 되었다. 1943년부터 연변지역 벼 생산량의 98%가 강제적 ‘공출’에 의해 약탈당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지가 저조해짐에 따라 연변지역의 식량생산량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연변지역의 농업용 토지는 대부분 일제의 지배와 통제 하에 있었으며,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도 일제의 전쟁과 자원약탈 수요에 부응하여 재배되는 전형적인 주변부 특징을 띠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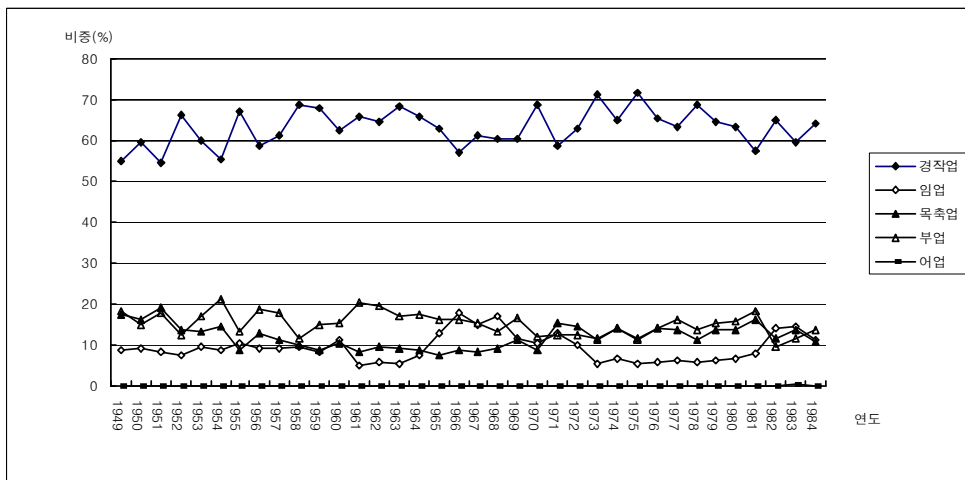
3. 사회주의 시기 연변지역의 농업특성

건국 초기 연변지역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과 내전으로 인한 파괴로 경제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

었다. 당시 연변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서 농업종사자는 전체 산업인구의 66.6%를 점하였다(延邊50年編輯委員會 編, 1999, 134). 공업도 일정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주요한 공업부문(목재, 제지, 광산개발 등)은 국가에서 통제하였기 때문에 지방재정수입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로 외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기 때문에 대외교류를 통한 경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다. 때문에 당시 연변지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농업생산을 복구·발전시키는 것이었다.

1) 토지소유관계

연변지역은 중국의 여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일찍 해방된 곳으로서 1948년에 이미 토지개혁운동이 결속되었다. 결과 농민들에게 분배한 토지가 182,064ha에 달하여 전체 경작지 면적의 81.72%를 점하였다(延邊朝鮮族自治州地方志編纂委員會 編, 1996, 58). 따라서 농민들이 땅의 주인으로 되어 생산의욕이 대폭 증가되었다. 그러나 분산적인 개인 소농경제는 노동력, 축력 및 농기구 등의 부족으로 인해 확대재생산이 어려웠고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국 초기부터 1956년까지 3단계의 호조합작(互助合作)운동을 거쳐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



자료: 延邊朝鮮族自治州地方志編纂委員會 編, 전게서, p.227의 수치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1. 연변조선족자치주 농업구조의 변화(생산액 기준)

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58년부터는 생산수단의 집체소유와 집단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공사화 운동을 추진하였다. 당시 인민공사 집단소유 농지는 전체 농지면적의 85.75%를 점유하여 가장 많았으며, 자류지(自留地)(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농경지)는 6.75%, 국영농장은 2.18%를 점유하고, 기타 기관과 단체 및 기타 부문에서 경영하는 경작지는 5.32%를 점유하였다(추영준, 1982, 59-60).

2) 농업구조

이와 같은 인민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생산 체제는 농업생산에 있어서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하여 각 지역에서 우선 식량을 자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지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 내부의 각 부문¹¹⁾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경작업만 중시함에 따라 농업 내부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그림 1).

위 그림에서 농업 각 부문의 생산액 중 경작업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1949년부터 1984년 간

경작업 생산액이 농업총생산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평균 63.2%에 달함) 여타 부문은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은 토지면적의 80% 이상이 임지이고 경작지는 6% 밖에 안되는 연변지역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았다.

경작업 내부에 있어서도 식량생산만 중요시하는 이양위강(以糧爲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경작업 중 특용작물과 같은 기타 부문은 경시되었다. 따라서 1949년부터 1984년의 36년간 식량작물 비중이 경작업 비중에서 점하는 비중은 평균 91.2%에 달하였다. 당시 주요 식량작물의 재배면적과 수확량은 <표 2>와 같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건국 초기에는 주요한 식량작물이 벼, 옥수수, 조, 콩이었으나 벼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된 반면 기타 작물은 감소되었거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는 연변지역은 벼 재배경험이 풍부한 조선족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식량생산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수확고가 높은 벼¹²⁾의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기 때문 이었다. 그리하여 벼 재배에 적당한 밭을 논으로 개량하여 논의 면적이

표 2.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요 식량작물 재배면적

단위: ha, ()안은 %

연도	벼	밀	서류	옥수수	수수	조	콩	기타	합계
1949	29,448 (11.7)	3,656 (1.5)	14,276 (5.7)	50,503 (20.0)	12,577 (5.0)	48,404 (19.3)	54,925 (21.6)	38,095 (15.2)	251,884 (100.0)
1952	36,116 (15.4)	8,346 (3.6)	10,288 (4.4)	31,979 (13.7)	8,760 (3.8)	46,559 (19.8)	67,917 (28.9)	24,303 (10.4)	234,268 (100.0)
1957	51,284 (22.4)	7,173 (3.2)	12,254 (5.4)	26,524 (11.6)	3,104 (1.4)	38,092 (16.6)	63,809 (27.9)	26,307 (11.6)	228,547 (100.0)
1962	32,334 (13.5)	7,569 (3.2)	9,098 (3.8)	35,058 (14.7)	8,586 (3.6)	39,788 (16.6)	85,482 (35.6)	21,498 (9.0)	239,408 (100.0)
1965	38,570 (16.0)	7,238 (3.1)	9,008 (3.8)	37,414 (15.5)	6,167 (2.6)	50,433 (21.0)	77,065 (32.1)	14,059 (5.9)	239,954 (100.0)
1970	46,660 (19.0)	13,473 (5.5)	8,598 (3.5)	34,994 (14.2)	3,953 (1.6)	47,807 (19.3)	76,394 (30.9)	14,800 (6.0)	246,674 (100.0)
1975	46,284 (19.7)	12,892 (5.6)	5,186 (2.3)	67,210 (28.6)	1,692 (0.8)	31,239 (13.4)	61,859 (26.3)	7,580 (3.3)	233,942 (100.0)
1980	47,318 (20.4)	16,501 (7.1)	7,036 (3.0)	44,405 (19.2)	1,715 (0.7)	30,841 (13.3)	76,218 (33.0)	7,558 (3.3)	231,592 (100.0)
1984	50,628 (22.8)	19,347 (8.7)	6,085 (2.7)	55,590 (25.2)	282 (0.1)	18,242 (8.2)	64,535 (29.1)	7,037 (3.2)	221,746 (100.0)

자료: 延邊50年編輯委員會 編, 전게서, pp.241~244.

급속히 증가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 있어서 농업은 여전히 연변지역의 주요한 경제부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연변지역의 농업생산은 시장 논리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니라 식량생산만을 중요시하는 “이양위강”정책의 영향으로 농업 내부구조가 균형을 잃게 되었으며 풍부한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4. 개혁개방 이후 시기 연변지역의 농업특성

1) 토지소유관계

개혁개방 초기부터 연변지역에서는 기존의 인민공사 집단농업생산체제를 개혁하기 시작하여 1984년에 이르러 대부분의 농촌들에서 국가소유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임대해주는 호도거리책임제¹³⁾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최대한도로 높게 되었다. 그리고 1984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에서는 ‘농촌전문호’¹⁴⁾를 발전시킬 데 관한 10가지 규정을 제정하여 농민들이 식량생산만을 중시하는 “이양위강”정책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다각경영의 길을 택하도록 고무하였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형태와 경영방법을 수용하는 정책을 취하였으며, 정부주도의 가격체계를 시장주도의 가격체제로 개혁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농민들은 국가의 지령에 의해 농작물을 생산하던 데로부터 시장의 수요에

의해 농작물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농업 내부구조는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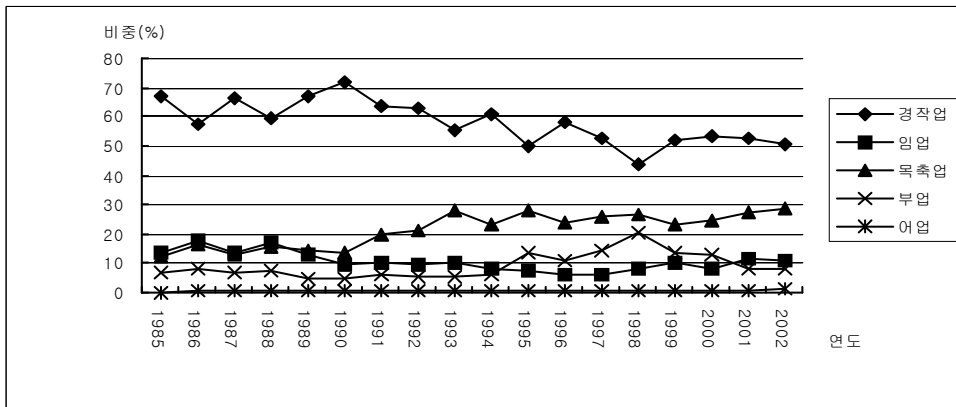
2) 농업구조

당시 농업내부구조의 변화는 농업 각 부문의 생산액이 농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그림 2).

위 그림에서 1990년대 이전까지 경작업이 전체 농업에서 점하는 비중은 연 평균 63.6%에 달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연 평균 55.2%로 감소되었다. 반대로 목축업이 점하는 비중은 1990년대 이전의 연평균 13.7%부터 1990년대 이후의 연평균 24.5%로 증가하였으며, 부업도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세에 있는데 연 평균 14.3% 점하여 사회주의 시기에 비하여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목축업의 발전이 뚜렷한데 이는 초원면적이 전체 면적의 약 5.4%를 점하고 산지와 구릉의 면적이 넓어 목축업의 발전에 유리한 연변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결과이다. 개혁개방 이후 서민들의 생활수준이 꾸준히 높아져 식생활 습관이 변화됨에 따라 축산물 상품률이 증가한 것도 목축업의 발전을 가속화 시켰다. 1997년 축산물의 상품률은 90.0%에 달하여 전체 농업 생산물 평균 상품률(69.9%)을 훨씬 상회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는 앞으로 목축업이 농촌상품경제에서의 매우 높은 발전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업은 주로 야생식물과 특산물 채집업을 말하



자료: 延邊統計局 編, 2003, 延邊統計年鑑2003, p.164의 수치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임.

그림 2. 연변조선족자치주 농업구조의 변화(생산액 기준)

표 3. 식량과 특용작물 생산액이 농업총생산액에서 점하는 비중

단위: 만원, %

작물	항목	연도									
		1985	1987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4
식량 작물	생산액	27,249	27,343	21,679	10,513	29,132	47,210	60,956	60,407	62,394	125,762
	비중	48.3	48.2	27.2	13.8	17.4	23.4	22.3	17.5	15.1	25.2
특용 작물	생산액	10,548	10,253	27,085	28,387	34,731	42,773	49,666	117,405	122,747	120,128
	비중	18.7	18.1	34.0	37.3	20.7	21.2	18.2	33.9	29.8	24.1

자료: 1985년과 87년 수치는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農業局 編, 1988, 延邊朝鮮族自治州農業經濟統計資料(1949~1987), pp.20~25에서 인용하였고, 1991부터 97년까지의 수치는 延邊統計局 編, 1998, 延邊統計年鑑1998, 中國統計出版社, p.178에서 인용하였고, 1998년의 수치는 延邊50年編纂委員會 編, 전게서, p.228에서 인용하였고, 1999년과 2000년 수치는 延邊統計局 編, 2001, 延邊統計年鑑2001, 延邊人民出版社, p.179에서 인용하였고, 2001년의 수치는 延邊統計局 編, 2002, 延邊統計年鑑2002, 延邊人民出版社, p.187에서 인용하였고, 2003과 04년의 수치는 延邊統計局編.延邊統計年鑑2005, 吉林人民出版社, p.159에서 인용하였음.

는데, 연변지역은 산지가 많아 특산물 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시기에는 개인적인 경제활동이 금기시 되어 풍부한 특산물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었다. 개혁개방 이후 상품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특산물자원의 시장수요가 증가하였고, 따라서 특산물 생산을 중시하게 되었다. 연변지역의 주요한 특산물은 인삼, 오미자, 송이버섯, 목이버섯, 홍경천, 고사리 등이다. 연변지역의 특산물은 최근 주요한 수출상품으로 되었는데, 수

출지역은 주로 한국 및 일본이다. 그중 한국에는 주로 약재가 수출되고 일본에는 송이버섯과 고사리 등이 수출되고 있다(朴承憲, 2001, 118-120). 특산물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왕청현에서는 풍부한 삼림자원을 바탕으로 목이(木耳)를 비롯한 버섯재배를 특화하기 위하여 2001년에 '2001년 중국 제1차왕청현감경귀버섯절(第1屆汪清縣黑木耳節)'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안도현은 인삼재배

표 4.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요 식량작물의 파종면적과 수확량

단위: ha, 톤, ()안은 %

연도	항목	벼	옥수수	콩	밀	서류	수수	조	기타	합계
1985	파종면적	54,477 (26.5)	45,728 (22.2)	67,463 (32.7)	16,587 (8.0)	5,419 (2.6)	207 (0.1)	10,739 (5.2)	5,568 (2.7)	206,188 (100.0)
	수확량	311,300 (46.2)	173,557 (25.7)	126,047 (18.7)	21,305 (3.1)	12,031 (1.8)	604 (0.1)	22,362 (3.3)	7,871 (1.1)	675,077 (100.0)
1990	파종면적	54,928 (27.4)	50,916 (25.3)	71,220 (35.5)	9,435 (4.7)	5,398 (2.7)	73 (0.0)	3,136 (1.5)	5,819 (2.9)	200,925 (100.0)
	수확량	297,177 (41.4)	241,572 (33.7)	133,328 (18.6)	15,618 (2.2)	12,621 (1.8)	178 (0.0)	6,506 (1.0)	9,202 (1.3)	716,202 (100.0)
1995	파종면적	45,229 (24.4)	48,410 (26.1)	76,249 (41.2)	4,518 (2.4)	5,415 (2.9)	25 (0.0)	1,018 (0.5)	4,581 (2.5)	185,445 (100.0)
	수확량	167,218 (37.3)	153,574 (34.3)	89,934 (20.0)	6,364 (1.4)	10,484 (2.3)	57 (0.0)	1,605 (0.3)	19,573 (4.4)	448,809 (100.0)
2000	파종면적	43,684 (24.4)	41,458 (23.2)	78,677 (44.0)	1,882 (1.0)	8,431 (4.7)	23 (0.0)	491 (0.3)	4,244 (2.4)	178,890 (100.0)
	수확량	265,506 (37.4)	239,648 (33.7)	169,900 (23.9)	2,837 (0.4)	25,123 (3.5)	49 (0.0)	956 (0.1)	6,741 (1.0)	710,760 (100.0)
2004	파종면적	38,433 (19.2)	49,352 (24.6)	99,473 (49.8)	458 (0.2)	4,561 (2.3)	13 (0.0)	238 (0.1)	7,375 (3.8)	199,903 (100.0)
	수확량	232,687 (31.7)	280,997 (38.3)	171,227 (23.4)	685 (0.1)	15,902 (2.2)	30 (0.0)	442 (0.0)	30,622 (4.3)	732,592 (100.0)

자료: 延邊統計局 編, 2005, 전게서, pp.171~174.

를 특화하고 있다(김석주 등, 2002, 151-156). 이외에 여타 현시의 부분 향진(鄉鎮)에서도 자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산물 재배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경작업 내부 구조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생산액이 농업총생산액에서 접하는 비중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표 3).

표 3에서 1985년부터 2004년 사이 식량작물 생산액과 특용작물 생산액이 농업총생산액에서 접하는 비중은 약간의 파동이 있지만 식량작물 생산액이 접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특용작물 생산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민들이 개혁개방 이전 식량생산만을 중요시하는 '이양위강' 정책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상품성이 높고 또한 자연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특용작물 재배를 중요시한 결과이다. 특히 특용작물 내부에서도 약재와 담배의 생산액은 제약공업과 담배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파종면적이 뚜렷이 증가되었다. 개혁개방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약재와 담배의 연평균 재배면적은 각각 547ha와 7,176ha에 지나지 않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각각 2,198ha와 12,444ha로 급속히 증가되었다(延邊統計局 編, 2001, 192-193).

식량작물 내부구조도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표 4).

위 표에서 연변지역 식량작물의 파종면적과 수확량에 있어서 벼, 옥수수, 콩이 접하는 비중은 1985년 이후 계속적으로 80% 이상에 달할 만큼 높아져, 개혁개방 이전(평균 약 67%)에 비하여 뚜렷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벼, 옥수수 및 콩의 시장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중 벼는 연변지역의 주요한 소비식량이자 외지로 수출되는 상품이며, 콩과 옥수수는 주요한 수출 상품이다. 그러나 여타 작물은 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시장 수요량이 적어짐에 따라 생산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연변지역의 농업은 전통적인 식량작물 생산 위주에서 점차 다각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농산품의 상품률은 1985년의 51.1%에서 1997년의 69.9%로 증가되었다(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編, 1998, 170). 또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업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농산물의 재배면적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변지역의 농업은 아직 풍부한 자연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 개척 여지가 많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 연변지역과 인접한 일본과 한국은 국제농산물시장에서 주요한 농산물 수입국이다. 때문에 연변지역의 농업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농업생산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수출지향형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농업변화 상황을 일제, 사회주의, 개혁개방 이후 등 3개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있어 농업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론적으로 일제시기 연변의 농경지는 이민정책, 자작농창정, 집단부락건설 등의 형식으로 한족지주의 수중으로부터 일제의 수중에 집중되었다. 상기의 수단을 통하여 일제는 대량의 농경지를 지배할 수 있게 되어 자신들의 전쟁 수요와 국내 수요에 따라 농작물 재배를 통제할 수 있고 또한 농작물을 마음대로 약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도 일제의 전쟁과 자원약탈 수요에 부응하여 재배되는 전형적인 주변부 특징을 띠고 있었다.

둘째, 사회주의시기에 연변지역은 농촌의 인민공사회를 실현함에 따라 토지는 전부 국가소유로 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의 국가 소유는 농업생산에 있어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농업생산은 시장 논리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니라 식량생산만을 중요시하는 '이양위강'정책의 영향으로 농업 내부구조가 균형을 잃게 되었다. 즉, 농업 내부에 있어 경작업만 중요시하고 경작업 내부에서도 식량생산만을 중요시 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서 호도거리책임제를 실시함에 따라 농민들이 토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크게 고양되었다. 게다가 사회주의 상품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

이함에 따라 시장의 주요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변지역의 농업은 전통적인 식량작물 생산 위주에서 점차 다각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변지역의 농업은 아직 풍부한 자연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개척 여지가 많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

연변지역은 인구밀도가 적고 생태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생태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적 우세가 있는 지역이다. 때문에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연변지역의 농업은 중국과 세계의 농산물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화·발전할 것이다. 특히 주요한 농산물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의 우월성을 활용하여 수출지향형 농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주

- 1) 일제는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중국과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1009년에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탄광 개발권 등 4대 이권과 연변지역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바탕으로 연변지역을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간도협약”이라고 한다.
- 2) 서로 동일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공유해 가면서도 복수의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상태에 있는 민족 집단을 과경민족이라고 한다.
- 3) 1950년 중국과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양국의 공동적인 발전과 일본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의 침략 제발을 방지하고 극동지역과 세계의 장기적인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을 체결하였다.
- 4) 1944년 당시 연변지역의 총인구 중 농업인구가 점하는 비중은 70% 이상에 달했다.
- 5) 이는 일제가 중국의 토지를 조차의 명의로 소유권을 얻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1915년 일제가 중국과 체결한 ‘만몽협정(滿蒙協定)’ 제2조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남만주에서 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조차할 수 있었다. 후에 이는 일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선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중국인의 토지를 조차할 경우에는 일본영사관의 인정을 받아야 했는데, 표면상으로는 조차의 형식으로 토지의 사용권이 이전되는 것 같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왜냐면 조차의 기간은 초기에는 30년, 후에는 20년으로 정하였으나 이 기한은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6) 당시 연변지역은 연길, 화룡, 왕청, 훈춘 등 4개 현이 포함되었음.
- 7) 자작농장정계획이란 일제가 연변지역에서 실시한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되도록 한다는 일종의 변상적인 착취수단이다. 일제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토지를 약탈한 후 다시 조선인 농민들에게 팔아 거액의 폭리를 얻었다.
- 8) 예를 들면 연변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 중 함경도 출신 조선인이 연변지역 전체 조선인에서 점하는 비중은 1924년에 85.1%, 1925년에 84.1%, 1926년에 55.3%, 1932년에 77.3%를 점하였다(현규환, 1967, 178-180).
- 9) 1895년 청조는 천진(天津)의 소참(小站)에서 신건육군(新建陸軍)을 조직했고 그 훈련을 원세개에게 맡겼다. 1901년 원세개가 북양대신이 되면서 신건육군을 북양군이라 부르게 되었다. 신건육군은 1905년 6진으로 확대 개편되어 북양군별집단을 형성하였다. 북양군은 원세개의 정치적 자산이나 다름없었다. 원세개가 죽고 나서 국민혁명군이 북벌할 때(1928년)까지 이들이 북경정부를 지배함으로써 북양군벌정부라 칭하게 되었다.
- 10) 1942년 간도성의 벼, 콩, 옥수수의 출하율은 평균 82.2%에 달하여, 전체 곡물 출하율의 74.2%를 상회하였다(박경수, 1987, 116).
- 11) 중국에서 광의의 농업에는 경작업, 임업, 목축업, 부업, 어업이 포함된다. 경작업은 다시 식량작물, 유료작물, 아마류, 당류, 잎담배, 약재, 채소, 과일, 차, 빵, 기타 경작업 등으로 분류되며, 임업은 다시 영림(營林), 임산품(林產品), 촌 및 촌 이하 채벌 등으로 분류되며, 목축업은 다시 성축, 가금, 기타동물사양 등으로 분류되며, 어업은 다시 내수면어업과 해양어업으로 분류되며, 부업은 다시 야생식물채집, 가내수공업, 수렵 등으로 분류된다.
- 12) 당시 밭작물의 ha당 평균 수확고는 1,000kg이고 벼의 ha당 수확고는 2,250kg로서 약 2.2배에 달했다.
- 13)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촌에서 실시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생산재와 토지는 여전히 집단이 소유하지만 사용권은 가정에게 양도하여 농민들이 자의적으로 농작물을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집단에서 요구하는 임무를 완성한 나머지 생산물은 가정이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농민들의 생산 동기는 크게 고양되어 농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 14) 가정을 단위로 농업과 농업 이외의 다양한 부문에서 상품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화 된 가정경영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식량전문호, 남새전문호, 닭사양전문호, 운수전문호, 상업전문호 등이 있다.

문헌

- 고승제, 1973, 한국이민사연구, 장문각.
 김규방, 동창순, 추영춘, 박경수, 1990, 연변경제사, 연변인민출판사.
 김석주, 러필순, 류충걸, 리광, 박창목, 심계숙, 온염

- 령, 주위홍, 2002, 연변관광자원과 리용, 연변대학출판사.
- 김석주, 2006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문화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16-30.
- 박경수, 1987, 연변농업경제사, 연변인민출판사.
- 조선족략사편찬조 편, 1986, 조선족략사, 연변인민출판사.
- 추영춘, 1982, 연변조선족자치주경제개론, 연변인민출판사.
- 현규환, 1967, 한국유이민사, 어문각.
- 吉林省延邊行政督察專員公署建設科, 1943, 延邊地區農業關係統計表.
- 東北近百年史講話, 1987, 黑龍江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 林軍, 1989, 中蘇關係史(1689~1989), 黑龍江教育出版社.
- 朴承憲, 2001, 延邊經濟形勢分析與豫測, 延邊大學出版社.
- 延邊50年編輯委員會 編, 1999, 延邊50年, 延邊人民出版社.
- 延邊朝鮮族自治州地方志編纂委員會 編, 1996, 延邊朝鮮族自治州志, 中華書局.
-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農業局 編, 1988, 延邊朝鮮族自治州農業經濟統計資料(1949~1987).
- 延邊歷史研究所 編, 1986, 延邊歷史研究, 第1輯.
- 延邊統計局 編, 1998, 延邊統計年鑑1998, 中國統計出版社.
- 延邊統計局 編, 2001, 延邊統計年鑑2001, 延邊人民出版社.
- 延邊統計局 編, 2002, 延邊統計年鑑2002, 延邊人民出版社.
- 延邊統計局 編, 2003, 延邊統計年鑑2003, 延邊人民出版社.
- 延邊統計局 編, 2005, 延邊統計年鑑2005, 吉林人民出版社.
- 교신 : 김석주(연변대학교 지리학과, Tel: 0086-433-273-2237, jinsz@hanmail.net)
Correspondence: Jin Shizhu(Dept. of Geography, Yanbian University, Tel: 0086-433-273-2237, jinsz@hanmail.net)
- (집수 : 2008. 3. 3, 채택 : 2008. 4. 7)